

# 전북 삼락농정, 결실 맺다

### 도 농가소득 증가율 28.0%... 전국 1위 '쾌거'

전북도가 민선6기부터 도정 제1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이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커다란 결실을 맺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의 농가소득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28.0%나 높아 전국 1위 증가율을 보였으며, 농가소득도 2017년 전국 9위에서 2018년 전국 3위로 6단계 상승한 450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4206만6000원보다도 7.2%나 높은 금액으로, 농촌관광산업으로 특화된 제주도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지리적 이점이 있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한, 농가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농가부채는 지난해 전국 3위 수준에서 7위로 낮아짐에 따라, 농가경제가 선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성과는 전북도가 민선6기부터 도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을 통해 민관협력 농정을 강화하면서 특화된 정책을 발

굴·추진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삼락농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삼락농정위원회'가 농민 중심의 농정협의체로 정착함에 따라, 2015년 이후 현재까지 71건, 684억원의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하면서 농가소득 향상 등 삼락농정 제1정책의 농업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이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지속적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 농민 공익수당'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및 '농축산물 재해보험' 확대하고, 중소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만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형 농민 복지 증진을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 및 '생생카드' 확대와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등의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찾고싶고 머물고 싶은 농촌 조성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거점·생생마을의 안정적 운영 활성화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및 도시와 청년의 삼락캠프,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종자·미생물·ICT 농기계·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벨트' 조성을 통해 전북을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집중 육성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업의 성장없이 전북이 발전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삼락농정이라는 협치행정을 통해 큰 성과를 창출했던 점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농민중심의 삼락농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며, 농업에 4차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진화를 통해 전년 미래 먹거리 산업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된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2015년 실시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농업인구의 변동 및 국내의 농업 환경변화를 반영해 모집단을 개편하고 실시한 최초 조사로서 최근의 농촌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결과로 평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가 최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대학교 잡(JOB) 멘토링' 오리엔테이션을 공공기관 재직자 및 대학생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 멘토와 함께하는 '똑똑한 취업 노하우'

### 전북도, 공공기관 - 대학교 JOB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개최

전북도는 최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대학교 잡(JOB) 멘토링' 오리엔테이션을 공공기관 재직자 및 대학생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공공기관-대학교 잡 멘토링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의 멘토가 되어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

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비롯해 출연기관, 금융기관 등 2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였고, 총 555명의 지원자 가운데 226명의 대학생 선발했다.

지난 민선6기 공약사업인 잡 멘토링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대학생 200명 이상 멘토링 지원을 목표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멘토 지원과 기관 수요를 고려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취업선호가 높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에 Two-Mentor를 확대 운영한다.

향후, 멘토링은 팀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별 멘토링 데이를 진행하고, 기관탐방과 취업특강 등으로 구성된 스페셜 멘토링을 통해 취업정보 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될 계획이다.

전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잡 멘토링 사업을 통해 맺어진 멘토와 멘티 간의 소중한 인연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더 나아가 전라북도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 문화가 뿌리내리면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를 나누는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글로벌 대도약 위한 신남방지역 교류 적극 추진

### 전북도 - 베트남 까마우성 우호교류협약 체결

전북도와 베트남 까마우성은 최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우호교류관계를 맺었다.

까마우성은 베트남 최남단 메콩강 삼각주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며, 전통적으로 어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새우양식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번 우호교류협약은 지난해 10월, 까마우성 의장단이 전북을 방문해 도와의 우호교류 의사를 적극 표명함에 이어 올해 초엔 전북도 실무진이 까마우성 현지를 방문해 사업실사를 진행하며 교류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베트남 까마우성

조영 탄빈 당서기(서열1위)와 톤 득 호영 부성장(서열3위), 전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도는 까마우성과의 이번 우호교류를 지역 특화형 실리교류로 승화시키기 위해 수산양식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표준화되고 친화적인 지능형 스마트 새우양식 개발을 추진하고, ICT기술을 까마우성의 풍부한 새우양식경험과 접목시키기 위해 조만간 개발 실무진의 까마우성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까마우성 방문단은 우호협약 체결 일정 외에 스마트팜시설과 새만금

등 산업현장도 둘러보면서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북도는 민선6기 베트남 다락성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해 베트남 교류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데 이어 민선7기에 우호지역을 하나 더 확보하면서 베트남지역과의 관계 확대에 나섰다.

국가의 신남방정책의 분위기에 힘입어 지역특색에 맞는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전북을 알리기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베트남은 신남방지역에서 가장 핵심국가이고 올 10월 하노이에 전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설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번 교류지역 확보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지진가속도계측기 점검으로 대응능력 제고

전북도는 지진재난에 대비해 도내 지진가속도계측기 1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오는 13~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4월 동해안에 연이은 지진 발생에 따라 다시금 지진에 대한 도민

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도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진 대응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제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고 정기점검에 나선다.

지진가속도계측기란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흔들림 또는 사설물의 흔들림을 가속도로 나타내어 기록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점검은 관리기관인 시군에서 7일부터 자체점검을 먼저 실시하고 전북도에서는 13~17일까지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 및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저변 확대 위한 본격 홍보

### 전북도, 교사·학생 500명 참여 미니잼버리 개최 스카우트교육·줄포생태공원 탐사·개최지 답사 등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과를 좌우할 참가대원 확보 및 스카우트 저변 확대를 위한 본격 홍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부안군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서 '교사·학생이 아영과 함께하는 미니잼버리(이하 아미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도 교육청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로 500명의 참가자 모집이 조기에 마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3일 오후 7시 개영식을 시작으로 한 이번 '아미잼'에는 도내 17개 초·중·고등학교 400명의 청소년과 100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미리 체험해보는 아영캠프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너의 꿈을 펼쳐봐 (Draw your dream!)'라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주제로 스카우트교육, 줄포생태공원 탐사, 잼버리 개최지 답사, 누에박물관·청자박물관 체험, 환경캠페인 활동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대행사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관, 전라북도 문화관광 홍보관

및 스카우트 용품 전시관을 운영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3일 개영식에 참석한 전북도 정철우 잼버리추진단장은 "2023년에는 미래 비전을 품은 17개국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새만금에 모여 대축전을 펼치게 된다"면서 "이번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 여러분도 향후 세계잼버리에 참가하여 지구촌 청소년들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8월에 학교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해 초등생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하는 캠프와 교사 대상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 교육청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